

Porsche Teens

취재와 프레드가 토르쉐 라이프치히 자연 구역에서 사파리 체험에 나섰다. 그럼 토비야스 함께.



아들아, 토르쉐 사파리 체험 어디?

사자랑 그런 동물들 보는 거요?

사자는 여기 살진 않아. 그레드 무엇을 만날지 알면 놀랄걸!

아호, 오늘 드디어 우리 차 파나메라를 넘겨받네!

와, 타워가 다이아몬드 모양이야...

그 뒤에는 트랙도 있어!

오늘 너희들에게 좀 깜짝 선물도 있지...

토르쉐 라이프치히 부지는 총면적 1800여 헥타르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군인들이 비상 상황에 훈련했다. 이제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한다. 취재와 프레드는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사파리에서 4km 도보 투어에 나섰다.



완전 짐승들이네!

그럼! 이제 좀 조용한 야생동물이란다.

날 수 있어서 좋겠다...

저 위에 말뚝가리 보이니? 적어도 17가지 희구들이 이곳을 새 서식지로 삼았단다.

여기 개구리와 양서류는 진흙을 좋아해. 물에서 알을 낳지. 물새들이 부리하면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물속에서 숨을 쉬어. 더 크면 우리처럼 폐가 생기고 땅에서도 살 수 있단다.



그리고 진짜 크게 껌껌 울 수 있어... 더 가봐도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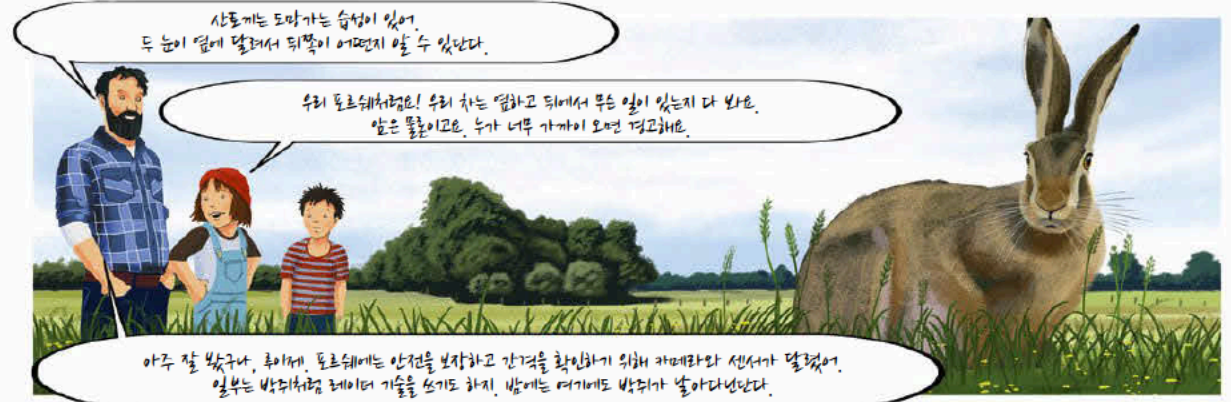


어휴, 어쩔 거랑게 빠르지? 내가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아차렸을까?

포르쉐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E-하이브리드 모델)

복합 연비: 3.0-2.1l/100km
 복합 CO₂ 배출량: 69-49g/km
 복합 전비: 24.9-23.1kWh/100km
 전기 최대 주행거리: 46-54km
 전기 최대 주행거리 시내: 49-55km
 기준: 2022/01

Dossier 라이프치히



산토끼는 도망가는 습성이 있어. 두 눈이 옆에 달려서 뒤쪽이 어떤지 알 수 있단다.

우리 토르쉐처럼! 우리 차는 열하고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봐요. 앞은 물론이고요. 누가 너무 가까이 오면 경고해요.

아주 잘 봤구나, 취재. 토르쉐에는 안전을 보장하고 간격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어. 일부는 방위처럼 레이더 기술을 쓰기도 하지. 밤에는 여기에도 밝기가 살아다녔단다.



라이프치히 토르쉐는 이곳에 엑스무어 조랑말 25마리, 유럽 들소 5마리, 오록스 75마리가 살고 있다. 이 밖에도 산토끼, 야생 토끼, 시슴, 오소리, 여우, 너구리, 들쥐, 족제비, 흰가슴늪개 등 수많은 토유류가 추가했다.

악! 꿀벌이 너무 많아. 우리들 쓸 거 같아...

걱정하지 마! 위험하지 않으면 쏘지 않아. 벌은 쏘고 나면 죽거든. 그레드 보호를 입는 게 좋겠다.



이게 투르비엔첸 (TURBIEN-CHEN) 꿀이네. 입구 개질용 가게에서 봤어.



이곳에 꿀벌 1억만 마리가 모여 살아. 각각 여왕이 있고, 수벌 수백 마리와 일벌 6만 마리가 무리를 이룬다. 벌들이 모는 과즙으로 우리는 꿀을 만들지.



이젠, 이제 잘 시안이다. 너의 부모님이 전화하셨네. 이제 돌아가자...



부모님은 꼭 여기 와서 운전하는 법을 배우야 한대요. '이브리드'였나?

프레드, 'E-하이브리드'라니까! 파나메라는 에너지를 재생할 수도 있대요.

그렇지. 언뜻도 절실히 환경 보호하는 방법이야.

토르쉐 사파리는 토르쉐 라이프치히와 환경교육기관 아우발트슈타치온 라이프치히(AUWALDSTATION LEIPZIG)가 협력해 진행한다. 정보와 예약: PORSCHE-LEIPZIG.COM/SAFARI